

국내기업 협력으로 희소금속 공급망 강화한다.

- 국가희소금속센터·고려아연·에이치케이머티리얼즈간 게르마늄 협력 업무협약 체결
- 「제2차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 개최

반도체, 전기차, 기계·항공 등 첨단 및 주력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 등 희소금속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기업들이 희소금속 활용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1월 20일(목) 용산 피스앤피크에서 「제2차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가희소금속센터·고려아연·에이치케이머티리얼즈간 ‘게르마늄 협력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고려아연이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협력 MOU를 체결한데 이어, 국내 기업 간 상생 기반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력을 통해 고려아연은 아연(Zinc) 제련 과정의 부산물에서 게르마늄을 생산하고, 에이치케이머티리얼즈는 이를 반도체용 가스로 정제·농축하여 국내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희소금속센터는 게르마늄 고순도화 기술개발 및 산업 활용 확대를 위한 기업간 연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제2차 협의회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가 공유됐다. 산·학·연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희토류를 비롯한 주요 희소금속의 수급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산업발전과 연계한 국가 핵심 희소금속 선정·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기업간 제휴를 넘어, 우리나라 희소금속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협력하여 기술·공급망 역량을 함께 확보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부도 이러한 민관 협업 모델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오늘 논의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책임자	과 장	송영상 (044-203-4690)
			사무관	정 석 (044-203-4693)

□ 제2차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 회의개요

- (목적) ‘희소금속경쟁력강화방안’ 연구용역 점검, 핵심 희소금속 선정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희소금속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 (일시) ‘25.11.20(목) 14:00~16:00
- (장소) 피스앤파크 다이아몬드 A홀 (용산)
- (참석자) 희소금속 관련 산·학·연 관계자 약 50명

시 간	주요일정	비고
14:00 ~ 14:05 (5')	· 모두 발언	산업공급망정책관
14:05 ~ 14:10 (5')	· 게르마늄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식	고려아연, 희소금속센터 등
14:10 ~ 14:30 (20')	· 희소금속경쟁력강화방안 용역결과	희소금속센터
14:30 ~ 14:50 (20')	· 희소금속 생산현황 및 국내협력방향	고려아연
14:50 ~ 16:00 (70')	· 기업의견 수렴	참석자

□ 업무협약식 체결 개요

- (목적) 국내 게르마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협력체계 구축
- (협약주체) [원료공급-제조·유통] ↔ 기술개발지원, 활용 다각화

고려아연	(주)에이치케이머티리얼즈	희소금속센터
게르마늄 원료 공급	게르마늄 농축가스 제조·유통	게르마늄 활용 연구개발 지원

- (협약내용) ① 게르마늄 연구개발 사업 추진, ② 게르마늄 공급망 안정화 성공모델 발굴·확산, ③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